

美 철강 수입 줄었는데… 한국산 철근 수출 33배 ‘질주’

상반기 대미 철근 수출 48만t 돌파
4월 美 수입시장 점유율 67% ‘1위’
데이터센터·인프라 투자수요 뒷받침
내수 건설 침체에 美로 판로 확대
높은 현지가격에 관세 부담도 상쇄
수입 급증 따른 통상 리스크는 변수

미국 철강 시장이 품목별로 양극화되고 있다. 고율 관세와 자국 생산 확대에도 건설·인프라 투자로 봉형강 수요가 빠듯해지면서 전체 수입 감소세와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판로 확대에 나선 한국 철강업체는 미국 시장을 새로운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철강업체의 대미 철근 수출량은 48만 3549t으로, 전년 동기(1만 4557t) 대비 33배 이상 급증했다.

월별 점유율 성장세도 가파르다. 철강



현대제철 충남 당진 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전문 조사기관 스틸오비스는 지난 1월 미국 철근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은 9225t에 그쳤으나, 4월에는 전체 수입량(10만 3510t)의 약 67%에 달하는 6만 9751t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미국철강협회(AISI) 집계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주요 공급국 가운데 한국산 철강 수입만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캐나다(-44%), 브라질(-33%), 멕시코(-35%), 베트남(-2%)

등은 모두 감소했다. 고율 관세와 자국 생산 확대 영향이 컸다. 미국의 올해 상반기 전체 철강 수입은 23.1%, 완제품은 24.3% 줄었고 철강 생산은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주요 공급국들은 관세와 반제품 중심 수출 구조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인프라 관련 철강재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 미국의 표준 레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7%, 중형 구조재는 58%, 구조용 파이프·튜브는 12%, 철근은 11% 증가했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망 등 인프라 투자가 관련 철강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철강업체의 내수 부진은 대미 수출 확대를 가속화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내수 수요가 침체되자 해외 판로 개척이 절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근 가격은 약세인 반면 미국 시장은 높은 가

격대가 유지되어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수출 유인이 충분했다”며 “미국 시장 가격에 맞춰 원가 효율성을 확보한다면 현지에서 경쟁 우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높은 현지 가격은 수출 유인 요소다. 다만 수입 급증에 따른 현지 통상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현대제철 등은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수출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철강산업연구원은 “봉형강은 내수 중심 품목이고 미국은 전기로 기반의 자국 생산력이 강해 타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현지 수요가 자국 설비 용량을 뛰어넘으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이것이 새로운 수출 유인과 기회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LCC, 중앙아시아·日 소도시로 영토 확장

대형사 피해 틈새시장 선점 경쟁 치열
알마티·비슈케크 등 신규 노선 확대
단독 노선 앞세워 높은 탑승률 기록

카자흐스탄알마티,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일본 미야코지마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뛰어드는 노선 목록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형 항공사가 거들떠보지 않던 중앙아시아와 일본 소도시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1일 국적사 최초로 부산~알마티 노선에 취항했다. 주 2회(월·금) 운항하는 이 노선의 첫 편 탑승률은 99%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인천~알마티에 이은 두 번째 중앙아시아 노선이다.

티웨이항공은 2023년 6월 국적사 최초로 인천~비슈케크 정기편을 열었다. 취항 3년 만인 지난 5월까지 누적 탑승객 7만 1000여 명을 넘어섰고, 여름 성수기 평균 탑승률은 80~90%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사 중 비슈케크에 취항한 항공사는 여전



티웨이항공 단독노선 비슈케크. /티웨이항공

히 티웨이뿐이다.

진에어의 인천~미야코지마 노선은 취항 2년 만에 누적 탑승객 16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유일 직항으로, 수요가 늘자 지난 4월에는 부산~미야코지마 노선도 추가로 열었다.

세 항공사 모두 대형사가 손대지 않은 노선에서 두 자릿수 탑승률을 채우고 있다. 인천~도쿄, 인천~오사카 같은 주력 노선의 운임 경쟁을 피해 가격 결정권을

쥌 수 있는 단독 노선을 택한 전략이다.

여행 트렌드도 힘을 보탰다. 클룩이 지난달 1~20일 한국 이용자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일본 소도시 검색량은 마쓰야마 318%, 미야코지마 281%, 기타큐슈 265%, 히로시마 220% 등으로 도쿄·오사카(각 51%)를 크게 웃돌았다. 미야코지마의 관문인 시모지시마공항의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도 전년 대비 약 60% 늘어 51만 2000명을 넘어섰다.

정책도 뒷받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 운수권을 11개 국적사에 배분했다.

항공사들은 지역 수요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신규 취항지로는 부산~중국 도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새로운 이색 노선도 상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도 “신규 취항지는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삼성전자, ‘7년 폴더블 기술’ 상설 전시

한지·디스플레이 기술 진화과정 공개

삼성전자가 7년간 축적한 폴더블 기술을 상설 전시로 내놔다. 애플의 첫 폴더블 진입을 앞두고 사전판매 144만대 흥행을 기록한 갤럭시 Z 폴드8이 연이어 포석이다. 10일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3층에서 폴더블 전시 공간 ‘폴더블 헤리티지’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스토어 홍대 1층과 청담 1층에서도 함께 운영된다. 청담점은 ‘갤럭시 폴드·플립’ 스토리 섹션 중심으로 꾸려진다.

전시는 ▲‘갤럭시 폴드·플립’ 스토리 ▲디자인 스토리 ▲테크 스토리 등 3개 섹션이다. 2019년 첫 인폴딩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부터 세계 최초 3단 폴더블 갤럭시 Z 트라이폴드와 새 화면비를 적용한 갤럭시 Z 폴드8까지 세대별 하드웨어와 갤럭시 AI 등 핵심 기술의 진화 과정을 한 동선에 담았다.

디자인 스토리 섹션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개발 과정을 다룬

다. 스케치 단계부터 수차례 목업 테스트를 거쳐 최종 화면비를 확정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폴드8은 기존 10대 9 세로형 화면비를 폴드8 울트라에 넘기고 4대 3 비율을 새로 채택한 모델이다. 테크 스토리 섹션에서는 디스플레이 기술과 한지 변천사, 내구성 검증 과정을 보여준다. 폴드8 울트라·폴드8에 처음 적용된 플렉스 티타늄 기술 영상과 실물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전자 갤럭시 Z 폴드7에서 OLED 패널과 티타늄 백플레이트 사이에 있던 플라스틱 필름을 티타늄 합금 필름으로 대체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모듈 두께를 약 10% 줄였다고 밝혔다.

전시에는 개발 단계의 폴딩·방수·충격 테스트 영상도 배치됐다. 폴드8 울트라·폴드8 내부를 그대로 드러낸 분해 전시도 공개됐다. 관람객은 초정밀 부품 설계와 공간 최적화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전자,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자체 수행

유럽 무선기기시험 시험기관 자격 획득

LG전자가 유럽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시험 역량을 강화한다. 제품 인증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해 개발부터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LG전자 CTO 산하 SW공인시험소는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유럽 무선기기시험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선기기시험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에서 유통되는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안·안전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기 방지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LG전자SW공인시험소는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해 해당 규제에 대응하는 인증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TUV 라인란드는 별도 시험 없이 LG전자의 자체 시험 수행 결과를 받은 뒤 데이터 검토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LG전자는 시제품을 해외 인증기관으로 보내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제품 개발부터 인증, 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보안에 민감한 제품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전장, 공조 등 B2B 사업에서는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B2B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샘, 소파 라인업 확대

기능성 신제품 3종 선보

한샘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에 세밀하게 맞춘 기능성 소파 신제품을 선보이며 기존 대표 제품군인 소파 라인업 추가 강화에 나섰다. 11일 한샘에 따르면 신제품은 ▲엠마컴포트스윙 ▲테이스리클라이너 ▲토빈 헤드틸팅 3종으로 한샘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집약했다. ‘엠마컴포트스윙’은 베스트셀러인 엠마컴포트에 스윙 기능을 결합한 제품이다. 등받이를 뒤로 이동시켜 좌방식 공간을 한층 깊고 넓게 활용할 수 있어 스물 없이도 다리를 쭉 펴거나 침대처럼 누울 수 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105~110도 각도의 등쿠션이 차별화된 착석감을 선사하며 벽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제로월’ 설계로 거실 공간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SDI,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개발

시너지셀즈 GM 지분 49.99% 인수

삼성SDI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세대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양사가 설립한 합작공장을 단독 생산거점으로 전환한다. 전기차 수요 변화에 맞춰 북미 생산 체계를 재편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로 생산 품목을 확대하면서 현지 사업의 안정성과 시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SDI는 GM과 차세대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의 공동 선행 개발을 위한 협약(JDA)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삼성SDI의 고에너지밀도·급속충전 기술을 적용한 각형 배터리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한 제품은 향후 GM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전방



삼성SDI 각형 배터리 ‘프리즘스택’. /삼성SDI

이다.

삼성SDI는 이와 함께 GM과 설립한 합작법인 ‘시너지셀즈(SynergyCells)’의 GM 보유 지분 49.99%를 전량 인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

시너지셀즈는 양사가 2024년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총 35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법인으로, 현재 연간 27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